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6월에 금리 인상 중단” 예상
- CNN Business: 기업체들은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까?
- Bloomberg: “팬데믹 긴급 지원금, 수백만 강제 퇴거 보호했다”
- WSJ Real Time Economics: 재택 근무 공고는 동북부 지역에 많아... 스타트업 차용 불가로 타월 던진다... 건설 굴삭기 매출 크게 는다... 암호화폐 조용히 상승한다

[미국 금융]

- WSJ: 연방 국세청, “재난지역 납세자들, 고지서 무시해도 된다”
- CNN Business: 모기지율 3주만에 처음으로 하락

[뉴욕시]

- Bloomberg: NYC 대기 오염도 ‘보통’으로 회복

[주택]

- CNN Business: 중산층 주택 구매자 “주택 부족 심각하다”

[중국 경제]

- WSJ: 중국, 인플레이 아닌 디플레이 직면
- Bloomberg: 미국과 5개국 무역 투자 관련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 비난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교대 근무: ‘대 퇴사’에서 배울 점
- WSJ: GM EV 소유자, Tesla 네트워크 사용 가능
- WSJ: Meta 독립형 앱 출시 계획... Twitter에 대한 대응책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 Seen Ending Its 15-Month Hiking Campaign in Economist Survey

“연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6월에 금리 인상 중단” 예상

-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 진단이다. 이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지속적인 인플레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보류할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 파월 의장도 지난달 긴축 정책의 종단을 암시하면서 그 근거로 그동안의 과거 인상 조치의 여파 평가와 최근 은행 부실이 신용 가용성(availability)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다릴 것이고 신호를 보냈다.
- 2023년말 정책 벤치마크가 5.1%로 예상한 것은 연준과 이코노미스트들이 동일했는데 반면에 시장은 7월에 0.25% 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12월엔 비슷한 규모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Why do businesses keep raising their prices? 기업체들은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까?

- 뉴욕, 애틀랜타, 클리블랜드의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정적인 수익률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등 기업이 가격을 책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고객 수요력(strength of customer demand)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 즉, 기업이 고객층이 떠날 정도의 높은 가격이 아니라면 원하는 만큼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82% 이상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한다고 답한 반면, 52%의 기업만이 가격을 책정할 때 전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Pandemic Aid Saved Millions of Americans From Eviction and the Data Proves It “팬데믹 긴급 지원금, 수백만 강제 퇴거 보호했다”

- 팬데믹 때 임대 상승으로 많은 이들이 강제 퇴거될 상황이었지만 연방 정부의 강제 퇴거 제한 조치와 연방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이들을 지키는데 큰 몫을 했다는 것.
- 2021년 초부터 연방정부를 통해 주 및 지방 정부에 460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다.
- 연방 센서스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평균 4천8백46만 명이 임대료가 밀렸다고 답했다. 이는 팬데믹 섯다운으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보다 470만 명이 더 많은 숫자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세입자 수는 늘었지만 임대료를 체납한 사람의 수는 감소했다.
- 당시 공화당의 임대료 지원 반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퇴거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재택 근무 공고는 동북부 지역에 많아, 스타트업 차용 불가로 타월 던진다, 건설 굴삭기 매출 크게 는다, 암호화폐 조용히 상승

[재택 근무 공고는 동북부 지역에 많아]

-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 중서부, 서부지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올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햄프셔를 포함한 모든 주들 가운데 거의 절반의 주에서 유연근무제를 제공한다고 광고한 일자리의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1년 전에는 13개 주에서는 유연 근무 옵션을 광고하는 일자리의 비율의 10% 미만이었다.

[스타트업, 차용 불가로 타월 던진다]

- 스타트업의 폐업, 매각, 급격한 사업 전략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 이유는 벤처 투자자와 은행 대출을 통한 신규 자본은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기업 공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현금 차입 이자가 낮을 때 효과가 있었던 일부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지속 불가능하다. 이는 벤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이 자금이 부족하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이다.

[건설 굴삭기 매출 크게 는다]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미 굴삭기 판매량은 2021년 대비 23% 증가한 41,320대로, 2년 연속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했다.
- 이유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도로 및 교량 수리, 기타 비주거용 건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출에 힘입어서 올해 매출이 5%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조용히 상승한다]

-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021년 정점 이후 60% 이상 하락했고, 각종 관련 거래소가 타격을 받았고 단속도 심해지고 있다.
-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자는 늘고 있고 이 자산군이 계속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금융]

WSJ: IRS Says Many Taxpayers Can Ignore Notices Demanding Payment 연방 국세청, “재난지역 납세자들, 고지서 무시해도 된다”

- IRS는 이번 달에 납세 해야 할 금액에 납부를 요구하는 수백만 통의 편지를 발송했는데, 그 중 상당수가 기한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제 IRS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 IRS는 조지아, 앨라배마 및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들의 여러 카운티와 함께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추가 시간이 있다고 전했다.
- IRS는 최근 2022년 과세연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약 500만 건의 청구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 일부는

아직 납부할 시간이 있는 재해 지역 납세자의 우편함에 잘못 도착했다고 IRS는 밝혔다.

WSJ 기사

CNN Business: Mortgage rates fall for the first time in three weeks 모기지율 3주만에 처음으로 하락

- 모기지율이 이번주에 하락했다. 모기지 금리는 경제 지표가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금리가 변동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3주 동안 상승하던 추세가 꺾인 것이다.
- 30년 고정 모기지율이 6월 8일 끝나는 주에 평균 6.71%를 보였는데 그 전주 6.79%에서 내렸다고 Freddie Mac는 밝혔다. 작년 같은 기관의 30년 모기지율은 5.23%였다.
- Freddie Mac 관계자는 “금리 상승세와 구매 부담 모기지자율이 계속 문제가 있는데 주택 재고 문제가 주택 구매자들에게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CNN Business 기사

[뉴욕시]

Bloomberg: NYC Air Improves to Moderate for First Time Since Monday NYC 대기 오염도 ‘보통’으로 회복

- 뉴욕 환경보전국에 따르면 뉴욕시의 대기 질이 “보통” 수준으로 개선 되었다.
- 이들은 그러나 입자 오염에 민감한 시민들은 여전히 활동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 DC의 대기 질은 여전히 나쁜 편이다.
- 대기질 지수(AOI)는 당초 5백이었는데 금요일 정오 현재 시간 104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주택]

CNN Business: Middle-income buyers face the most severe housing shortage 중산층 주택 구매자 “주택 부족 심각하다”

- 미국 중산층 주택 구매자들은 모기지 자격과 대출 받을 능력이 있어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을 거의 찾지 못하고 있다.

-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소등 계층 중 중산층이 가장 심각한 주택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들을 위한 주택이 30만 채 이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올해 4월 말 매물로 나온 주택은 약 110만 채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지만, 중산층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

CNN Business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a's Inflation Problem? It Has None

중국, 인플레이션 아닌 디플레이션 직면

- 5월 중국 공장이 부과하는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는 중국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는 징후이다.
-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주 금요일 소비자 물가가 0.2% 상승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중앙은행이 설정한 연간 인플레이션 상한선(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금리 인하 또는 통화 약화, 가계와 기업에 지출 유인(inducement)책 제공 등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말한다.

WSJ 기사

Bloomberg: US and Allies Condemn Economic Coercion With Attention on China

미국과 5개국 무역 투자 관련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 비난

- 미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중국을 지적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을 타깃으로 무역과 투자에 관한 경제적 강압 조치와 비시장 정책을 비난했다.
- 이들은 “룰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기능과 신뢰를 약화시키는”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이 성명서는 경제적 여파(영향력)은 없는데 작은 국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달 G7발표와 유사한 내용이다.
- 성명 발표전 미 무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성명이 비난한 대상자로서 중국이 가장 큰 가해자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Work Shift: What We've Learned from the Great Resignation**교대 근무: '대 퇴사'에서 배울 점**

- 미국인의 2.4%가 4월에 일을 그만 두었다. 또한 금융 전문가 2명 중 1명은 직업을 바꿀 의향이 있거나 이미 이직했다.
- 팬데믹 기간동안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 이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생겼다. 현재의 높은 이직률은 근로자들의 시간적 유연성 문제 때문이다.
- 경제의 불확실성과 급여 인상,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 등 직원 유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사직률을 낮추기는 했지만, 스케줄 유연성 문제는 여전히 이직률을 높이고 있다.
- 기업들은 여전히 완전 원격 근무, 대면 근무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을 고민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자신에 가장 적합한 회사를 찾고 있다.
- 구인구직 사이트 Indeed의 조사에 따르면 고임금 직무의 연봉 범위는 넓어지는 반면, 저임금 직무의 연봉 범위는 좁아지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GM EV Owners to Tap Tesla's Supercharger Network**GM EV 소유자, Tesla 네트워크 사용 가능**

- GM은 목요일 테슬라가 내년부터 GM 고객에게 테슬라의 고속 충전기인 슈퍼충전기차저 1만 2천 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락 했다고 밝혔다.
- GM과 테슬라의 충전 포트가 다르기 때문에 GM은 2025년부터 테슬라 충전 포트가 장착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 테슬라는 올해 초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M은 Ford에 이어 테슬라 네트워크 활용 계약을 체결한 두 번째 전기차 제조업체이다.

WSJ 기사

WSJ: Meta Reveals Twitter Competitor It Plans to Launch as Stand-Alone App**Meta 독립형 앱 출시 계획... Twitter에 대한 대응책**

- 메타는 독립형 앱을 직원들에게 공개했다. 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시할 계획이며, 트위터에 대응하기 위한 출시이다.
- 최고 제품 책임자인 Chris Cox가 목요일 메타 전체 회의에서 이 앱을 시연했다.

-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메타 CEO Mark Zuckerberg가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IMF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긴축 유지해야"

BNP파리바 "양적긴축, 곧 유동성에 타격...증시 4% 하락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주요국 중앙은행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8일(이하 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잭 대변인은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